삼성, 폴란드 가전기업 Amica 인수

생산설비 7600만달러에 ... 현지생산 통해 유럽 백색가전 1위 공략

삼성전자가 폴란드의 가전기업 Amica를 인수해 유럽 백색가전 시장 공략에 나섰다.

프리미엄 제품군이 주류를 이루는 유럽 백색가전 시장에서 1위를 노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장확대 전략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폴란드의 가전기업인 Amica의 생산설비를 7600만달러에 인수함으로써 유럽에서 삼성 브랜드를 단 냉장고와 세탁기를 본격 양산해 시장에 공급할 교두보를 확보했다.

연간 500억달러에 달하는 유럽의 백색가전 시장에서는 삼성의 위상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유럽에 생산기지를 둔 일렉트로룩스를 비롯해 밀레, 보쉬, 월풀 등 현지 및 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은 LG전자에도 유럽 백색가전 시장에선 뒤쳐진 게 현실이었다. TV와 휴대폰이 유럽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삼성은 유럽에 백색가전 생산기지가 없어 물류비용 증가로 가격경쟁력 취약했으며, 수시로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공장을 사들이는 카드를 선택함으로써 Amica를 인수하게 됐으며,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양문형 냉장고, 대용량 드럼세탁기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공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23>